

‘우정의 썸’에서 ‘파트너 체인지’까지 파격

(12일 종영 채널A 프렌즈)

(카카오 TV 체인지 데이즈)

썸으로 발전한 ‘프렌즈’ 커플 화제 ‘체인지 데이즈’도 벌써 호기심 자극 ‘찐한친구’ 김해준·이은지 모한 설렘 OTT 강세 흐름속에 갈수록 존재감



채널A ‘프렌즈’가 연애 예능프로그램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하트시그널’ 시리즈의 변이편으로 화제몰이 성공했다. 사진제공 | 채널A

설렘과 재미를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면 ‘연애 예능’이 답이다. 2008년 연애인들의 가상 연애를 내세운 MBC ‘우리 결혼했어요’ 이후 명맥을 이어온 연애 예능프로그램이 최근 방송가와 유튜브를 무대로 활용하며 더욱 다양해지고 파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채널A 예능프로그램 ‘프렌즈’, 카카오 TV ‘체인지 데이즈’, 유튜브 콘텐츠 ‘찐한친구’ 등이다. 저마다 주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남녀 출연자들의 긴장감 넘치는 ‘썸’을 핵심 시청 포인트로 내세운다.

● ‘커플 바꾸기’부터 ‘우정 썸’까지

12일 종영한 ‘프렌즈’는 연애 예능프로그램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하트시그널’의 역대 출연자들이 다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에는 이들이 각자의 일상 속에서 서로 우정을 다지는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가운데 ‘썸’의 관계로 발전한 오영주·김현우, 김장미·이기

훈 등이 화제를 이끌었다. 제작진은 사랑을 비롯해 우정, 직업관 등 젊은 세대가 공감할 만한 요소를 균형 있게 녹여냈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관련 시리즈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이별을 고민하는 세 쌍의 비연애인 커플이 일주일간 제주의 한 숙소에서 함께

머무는 과정을 담아 18일부터 공개하는 ‘체인지 데이즈’는 파격을 선택했다. 출연자들이 서로 파트너를 바꿔 데이트하는 모습으로 이미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질진한 개그맨 선후배 사이인 김해준과 이은지는 유튜브 계정 ‘스튜디오 플레

닛’의 ‘찐한친구’로 요리와 발레 등 다양한 취미를 함께 하면서 우정과 ‘썸’을 오가고 있다. 각각 ‘부캐’(제2의 캐릭터)인 ‘최준’과 ‘길은지’로 이름값을 높이고 있는 이들이 모한 설렘을 자극해 많게는 200만 조회수까지 얻을 만큼 인기다.

● 꾸준한 수요·OTT 포맷에 ‘딱’

이처럼 계속 진화해가는 연애 예능프로그램은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 속에서 존재감을 더욱 드러낸다. ‘우리 결혼했어요’와 2011년 SBS ‘썸’ 이후 현재까지 쌓인 마니아 시청층 덕분에 손쉽게 화제몰이를 하기도 했다. 심의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OTT가 남녀의 이슬아슬한 감정을 더 실감나게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티빙 등도 관련 소재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작위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있지만, “많은 시청자가 쉽게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는 식지 않을 전망이다. ‘체인지 데이즈’의 연출자 이재석 PD는 12일 ‘데이트 장면 등은 구성의 일부일 뿐이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행복과 사랑의 정의를 끌어내는 게 기획의도’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여고괴담’ 시리즈 탄생시킨 이춘연 씨네2000 대표 별세

한국 공포영화의 새지평 연 총무로 ‘말형’ 여고괴담 6번째 시리즈 ‘모교’ 유작으로



이춘연 대표

한국 공포영화 ‘여고괴담’ 시리즈를 만들어온 영화제작사 씨네2000의 이춘연 대표가 11일 71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운데 고인의 장례가 영화인장으로 치러진다.

12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 고 이춘연 대표 장례위원회위원장을 맡아 영화인장 준비에 나섰다. 배우 신영균과 임권택·정진우 감독 등이 고문으로, 배우 김규리·김서형·명계남·문성근·손예진·이병헌·하정우 등과 강우석·강제규·김유진·봉준호·이창호·정지영 감독 등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김영진 영화진흥위원장·신철 부천국제판타스틱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대표·채운희 영상물등급위원장 등 주요 영화단체장 등도 장례위원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키다. 이들을 비롯해 많은 영화관계자들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성모병원을 찾아 슬픔을 나눴다.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인 고인은 1999년 ‘여고괴담’을 시작으로 모두 5편의 시리즈로 한국 공포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 이를 통해 김규리·최강희·김옥빈·송지효 등 배우들을 배출했다. 1970년대 연극계에서 활동하다 1983년 화천공사 기획실장으로 영화계에 발을 내디딘 고인은 씨네2000을 설립, ‘여고괴담’ 시리즈를 비롯해 ‘더 테러 라이브’ ‘미술관 옆 동물원’ ‘거북이 달린다’ 등을 제작해왔다. 지난해 ‘여고괴담’ 여섯 번째 이야기인 ‘모교’를 개봉하려다 감염병 사태로 일정을 미루 유작으로 남겼다.

고인은 1990년대 이후 한국영화의 부흥을 이끌며 영화계의 다양한 현안과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서 왔다. 이를 위해 영화인회의 이사장으로 일한 그는 후배 제작자 등 영화관계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말형’으로 불렸다.

고인은 11일 밤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 이송 도중 끝내 숨을 거뒀다. 영결식은 15일 오전 10시 엄수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글로벌 케이팝그룹 ‘왕들의 귀환’

BTS, 21일 영어 신곡 ‘버터’ 첫 공개 NCT 드림 첫 정규앨범·엑소 새 앨범 몬스터엑스, 6월 1일 미니음반 발표

‘잇츠 쇼 타임!’

최정상 글로벌 그룹들의 ‘컴백쇼’가 펼쳐진다.

저마다 강력한 팬덤을 거느린 케이팝 그룹들이 잇따라 새 앨범을 전 세계 동시 발표하면서 가요계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각종 음원사이트가 과거 히트곡들의 역주행으로 이른바 ‘콘크리트 차트’를 유지하고 있어 ‘음원강자’인 케이팝 그룹들이 정주행으로 판도를 뒤흔들기도 관심을 끈다.

가장 시선을 모으는 그룹은 한국가수 최초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이다. 폐가 히트곡 ‘다이내믹(Dynamite)’에 이어 두 번째 영어 신곡인 ‘버터(Butter)’를 21일 선보인다. 또 한번 세계 팝시장을 정복하겠다는 방탄소년단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들은 최근 클럽 영상과 자유분방하게 차려입은 단체 티저 사진 등을 공개하며 눈길을 모았다.

특히 미국 레이블인 컬럼비아 레코드를 통해 버스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며 현지 라디오 DJ들에게 신곡을 먼저 들려주는

‘버터 버스 투어’ 프로모션으로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라디오 방송횟수가 ‘다이내믹’의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산정에 절대적 비중으로 작용한 만큼 신곡 발표 전 라디오 전파를 공략한 셈이다. 이들은 24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관련 무대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이들에 앞서 NCT 드림은 10일 데뷔 이후 첫 번째 정규앨범 ‘밋’을 발표하고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전작보다 243% 증가한 171만6571장의 선주문량으로 이틀간을 기록했다. 특히 3년 연속 미국 빌보드 ‘올해의 21세 이하 아티스트 21’에 선정된 이들은 이번 앨범을 통해 영역 확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엑소의 새 앨범에도 관심이 쏠린다. 멤버 가운데 수호, 첸, 찬열, 백현 등이 군 복무 중이라 앨범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다음 달 7일 스페셜 앨범 ‘돈트 파이트 더 펠링(DON'T FIGHT THE FEELING)’을 내놓는다. 2019년 11월 선보인 정규 6집 이후 1년 6개월 만이라는 점에서 팬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의미다.

몬스터엑스 역시 다음 달 1일 미니음반 ‘원 오브 어 카인드’를 내고 국내외 차트 점령을 노린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사생활 논란 김정현, 소속사와 계약 만료

사생활 노출 등 논란에 휩싸였던 연기자 김정현이 소속사와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다. 12일 김정현은 “이날 소속사 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끝났다”고 밝혔다. 2018년 드라마 ‘시간’ 하차와 관련해 당시 연인이었던 연기자 서예지의 총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건강상 문제를 호소했지만 소속사가 스케줄을 강행하고 소속 배우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기부천사 아이유, 과천에도 1000만원

가수 아이유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12일 김중천 과천시장은 SNS를 통해 “아이유가 어려운 과천시민을 위해 써 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유는 2019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큰돈을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이유는 3월에도 청소년 한부모 가정 및 청각장애인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사망사고낸 박신영 아나 “용서받지 못할 일”

박신영 전 MBC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최근 일어난 교통사고에 사과했다. 12일 박 아나운서는 SNS를 통해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과속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5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그룹 방탄소년단·엑소·몬스터엑스·NCT 드림(위부터)이 잇따라 컴백하며 국내외 팬들을 설레게 한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미나리’ 팀 다시 뭉치나

‘플랜B’ 제작자 크리스티나 오 ‘정이사 감독과 장편영화 개발중’

윤여정에게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준 영화 ‘미나리’의 정이사 감독과 제작사가 다시 뭉친다. 이를 통해 또 한 번 ‘미나리’의 영광을 재현할지 기대를 모은다.

‘미나리’의 제작사로 브래드 피트가 이끄는 플랜B엔터테인먼트(플랜B)의 크리스티나 오 제작 총괄프로듀서는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의 해외 플랫폼 코비즈 인터뷰에서 “정이사 감독과 또 다른 장편영화를

개발 중이다”면서 “이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현재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실사영화를 준비 중으로, 이 작업 이후 플랜B와 새로운 작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계 미국인 제작자이기도 한 크리스티나 오 프로듀서는 ‘미나리’의 시나리오를 주연 스티븐 연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아름다운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면서 “정 감독의 친절하고 온화한 영혼과 마주한 후 ‘미나리’를 제작하고 싶었다. 아주 멋진 꿈의 프로젝트였다”며 감독에게 신뢰를 보였다.



영화 ‘미나리’의 여주 노엘 조와 앨런 김, 배우 윤여정·스티븐 연·한예리와 연출자 정이사 감독.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사진제공 | 뽀네네마

그는 윤여정에게 대해 “놀라운 사람이다”면서 “정말 더운 곳에서 아주 적은 예산(20억원)과 시간으로 찍어야 했지만, 윤여정은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했고, 정 감독을 깊게 신뢰했다”고 존경심을 드러냈다. 이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